

‘1%’ 섞는 혼화제 대란에… 레미콘 멈추고 건설현장도 위기

배합 비율 1~2%지만 생산 핵심재 정부대책 고심, 제조사 재고파악 시급 건설경기 침체 속 혼화제까지 대란 대체재 없어 공급난 장기면 생산중단 가격급등·물량부족에 업계 직격탄

제조시 1% 정도만 들어가는 혼화제 대란으로 레미콘 업계 전체에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잠시 휴전에 들어갔던 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불거진 원유 부족 현상이 나프타→에틸렌→혼화제에 순차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레미콘 공급난 심화로 이어지고 이로인해 자칫 주택·건설 현장까지 멈출 위기다.

8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레미콘(REMICON) 제조시 일반적인 배합 비율은 자갈, 모래 등 골재가 70~75%, 시멘트가 10~15%, 물이 5~10% 그리고 혼화제가 1~2% 정도 들어간다. 혼화제 배합 비율은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대외 비로 관리하고 있다. 노하우인 셈이다.

레미콘의 부피 단위인 1루베(1m³)당 들어가는 혼화제 양은 4kg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갈의 강도가 높고 모래의 불순물이 적어 골재의 품질이 우수했던 과거에는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혼화제는 콘크리트를 훨씬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균열도 적어진다. 게다가 빨리 굳는 것을 조절해 레미콘을 좀더 먼 곳까지 운반하거나 높



7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믹서트럭이 보이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레미콘의 핵심 원료인 ‘혼화제’ 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뉴시스

은 곳까지 나를 수 있어 작업성도 좋아진다.

혼화제는 ‘석유화학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나프타에서 출발한다. 원유를 증류하면 투명한 액체인 나프타가 나오고 이를 고온에서 분해하면 가장 먼저 기체 상태인 에틸렌을 얻을 수 있다. ‘고성능 감수제’라고도 하는 혼화제는 에틸렌을 산화시키는 등 화학반응과 제조 과정을 거쳐 생산한다. 나프타가 밀가루라면 에틸렌은 반죽, 혼화제는 국수인 셈이다.

경제 데이터 플랫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당시 톤(t)당 484.63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은 이달 6일 현재 1010.5달러로 2배 넘게 폭등했다.

나프타는 혼화제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장재, 단열재, 스티로폼(EPS), 우레탄 등 주요 건축재를 만들때 쓰이는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등을 만드는 데도 요긴하게 쓰인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줄고 나프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혼화제 역시 kg당 20~30% 정도씩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혼화제를 10t씩 거래하고 있다.

문제는 부족할 것을 대비해 더 높은 값을 쳐줘도 공급이 딸리면서 혼화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수의 레미콘 회사 관계자는 “레미콘 회사들마다 혼화제 보유 수준은 조금

씩 다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면 4월말이나 5월초에는 바닥나 레미콘 제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혼화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혼화제 부족 현상에 대해선 현재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가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업계는 혼화제 제조사들의 재고 수준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없어서 못보는 것인지, 좀더 높은 가격을 받기위해 있어도 내놓지 않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화제 제조사로는 국내에선 실크로드 시멘티가 가장 규모가 크다. 국내의 경우 충남 아산, 제주에 각각 혼화제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실크로드시멘티는 지난해 기준으로 169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가뜩이나 전방 산업인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미콘 회사들이 제조시 1% 정도가 들어가는 혼화제 부족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연간 1536만 루베(m³)의 레미콘 생산능력(하루 8시간, 250일 기준)을 갖추고 있는 유진기업의 경우 지난해 가동률이 33.3%에 그칠 정도로 업황이 좋지 않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나프타 급등에 반짝 흑자… 석화업계 ‘래깅 착시’

저가 원료 투입에 일시적 마진 개선 유가 하락 땀 고가 원료 부담 확대 실적 회복보다 수익성 변동 우려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플라스틱·섬유 등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석유화학업계의 단기 수익성도 일부 개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월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한 나프타가 지난달 공정에 대거 투입되며 래깅 효과가 반영되면서다. 다만 이를 본격적인 실적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란전쟁 종료 시 유가 하락으로 제품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여천NCC

가격이 먼저 떨어질 수 있고, 분쟁이 이어져도 고가 원료가 순차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면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유가와 나프타 가격 상승에도 일부 석유화학업체는 중동전 이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한 나프타가 지난달 공정에 투입되면서 단기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 공정은 원료인 나프타를 매입한 뒤 실제 생산에 투입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이달 판매되는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확보한 나프타 가격이 반영된다. 반면 제품 가격은 최근 시황 상승분을 따라가면서 마진이 일시적으로 확

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증권가도 래깅 효과가 실제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이 3월 래깅 효과 등에 힘입어 636억원 수준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쟁이 끝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돼 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급락하면 제품 가격도 빠르게 내려가지만 이번 달 비싸게 매입한 나프타는 다음 달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원관희 기자 wkh@

개방형 혁신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

중기부, ‘모두의 챌린지 방산’ 출범

정부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방위산업 분야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방부와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모두의 챌린지 방산(방산 챌린지)’ 출범식을 가졌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같은 민간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많아지면서 스타트업이 방산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된 군 정보, 부족한 실증 기회 등이 방산 생태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중기부와 국방부는 지난 2월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공개하고 민간의 국방 기술 개발 참여를 늘리고자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속조치로 마련된 방산 챌린지는 군·수요 기반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스타트업과의 매칭 및 기술실증(PoC), 사업화 연계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방산 챌린지는 군 제의 과제인 탑다운(Top-down)과 창업기업 제안 기술인 바텀업(Bottom-up) 방식을 고려해 총 10개 과제를 뽑았다.

/김승호 기자

외국전문·숙련기능인력 비자추천 상시 운영

중진공, E-7-1 27개 직종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접수를 상시 운영한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E-7-1 고용추천은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부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공고 기준 27개 직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장 요건으로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금요건(연 3112만원 이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E-7-1 고용추천 직종을 기존 24개에서 해외영업원, 상품기획전문가, 조사전문가를 추가해 총 27개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기획·조사 분야 인력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E-7-4 전환추천은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선발계획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승호 기자

HD현대

협력사 원재료난 지원

에틸렌 공급에 금융 뒷받침

HD현대는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기반 원재료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지자, 중소 협력사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건조 핵심 원재료인 에틸렌과 도료 원료 수급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선박 강제 절단에 쓰이는 에틸렌은 HD현대케미칼을 통해 2000톤을 확보해 협력사 요청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도료의 핵심 원료인 자일렌 등도 HD현대오일뱅크를 통해 협력사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HD현대는 협력사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정책금융과 연계해 조선, 건설기계, 전력기기 사업 관련 협력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은 협력사가 담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원재료 확보 등 유동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김명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대표(왼쪽)가 김성준 오토헨즈 대표와 지난 7일 서울 구로지타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라솔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모빌리티 혜택 확대

중고차 할인 서비스 강화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오토헨즈와 손잡고 고객들에게 중고차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코라솔)은 지난 7일 오토헨즈와 고객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토헨즈는 중고차매매 플랫폼 오토인사이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차량 매입부터 상품화·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신뢰도 높은 중고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코라솔 가입 고객은 오토인사이드를 이용해 중고차 구매 시 최대 3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판매 시에도 최대 30만원의 추가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양사는 또 오토헨즈와 연계한 코라솔 전용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코라솔은 오토헨즈와 협력을 통해 기존 건강·생활 중심의 라이프케어 서비스 범위를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대하고, 고객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